

SERMON 10 JANUARY 2016

Isaiah(이사야) 43:1-7, Acts(사도행전) 8:14-17, Luke(누가복음) 3:15-17, 21-22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수요일 제가 이 설교를 적기 시작 했을 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켓은 어느 누구도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도록 오랫동안 연기되었습니다. 파라마타 연못에 댐의 맨 위는 나이아가라 폭포들처럼 넘쳐 흐르고 있었으며 파라마타 강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독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의 집들이 떠내려 갔었고, 그 결과들은 우리가 거의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조상 매우 가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날씨가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시간에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도시의 삶과, 호주 땅,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나요? 심지어 그렇게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서 모든 것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듯하며 우리의 관심은 갑자기 새로운 것에 반응하며 바뀝니다. 그럼 성경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 하나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의 부분으로 과거로부터 소리들인 이사야, 사도행전, 누가복음으로 부터 들은 말씀들이,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세대를 가로질러 어떤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위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꼭 우리의 폭력적인 세상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씀의 감상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적어둔 성경봉독 말씀과 같습니다: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성의 놀라운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안에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개입으로 연결합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억류는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문학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경험의 울림입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가 멈추고 상상해볼 거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홍수와 화재의 위험성들을 상기 시킵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사야서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태초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예언자는 사람에게 이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들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곳 안에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동사의 시제가 미래로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행의 반전을 가져 올 것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습니다. 그것은 그 천 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같은 메세지 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중동의 폭력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나라들의 분명한 거래에 우리의 감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회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사정이 변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것과 그 후 의 연결선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들이 무너지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확인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히브리 사람이며 전통적인 예언 안에서 형성된 예수님조차도 그의 사역이 성장함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 나갔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충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3 장 앞부분의 세례 요한의 말에서 많이 암시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을 변화 시키는 근본적인 전환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에도 있었음을 알지만 사마리아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세례와 그들에게 오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확인되었던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창조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오늘날 성경은 이것이 일어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떤 체제 또는 신앙의 동기를 벗어나 좋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 인가요?" 내가 생각 할 때 이것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은 생명과 자유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는 그들이 기대감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식이 평범한 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주는 듯한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마 요한이 누가 복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그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로서 이해하도록 요한의 탄생의 상황을 묘사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악용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목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지막 예언자적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백성들은 "기대감으로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고 있었으며 능력 있고 놀라운 요한이 그분은 아닙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이야기 합니다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의 기대에 적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우리는 누가 복음서 에서 약 20 년의 공백 후에 예수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서막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가까이에 왔습니다. 막 새로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얼마나 누가의 세례에 대한 보고가 보잘것 없는 것인지 봅시다. 요한 복음서에 있는 것 보다는 훨씬 감소되고 비록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는 또한 다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스스로 그 보고를 비교해 보기를 원하 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쩐지 겨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함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행사인 것처럼 만들어 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좋은 창조물의 한 새로운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행위로서 그 말씀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변형의 놀라운 경험에서 같은 말씀들로 메아리 쳐 질것이라는 것을 아마 주목할 것 입니다.

아마 초점은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초월적이고 육신적으로 연결된 깊은 관계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의 묘사들을 앞으로 몇 주간 들을 것입니다. 누가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주어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오늘 들으신 내용은 요셉과의 알려진 관계 그리고 지난 모든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까지 관통하여 예수님을 자리매김하는 족보가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혈통의 역사성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간을 거슬러서 태초에 하나님의 자신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까지 거슬러 올라 모든 사람들, 남성들과 여성들과, 관련된 관계 역시 중요했습니다. 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 이든 간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로서 우리 자신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 즉 우리 자신을 보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그 무대는 누가의 그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정돈된 설명" 이라고 부르는 다음부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는 다른 많은 소품들과 앞으로 나타날 메시지를 만들어 낼

정보들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는 예수님. 천사에 의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목자에 의해서 알려진 예수님 그의 탄생은 겉보기에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예수님, 그의 어머니는 그의 분명한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였던 예수님은 회당에서 기대와 함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나이든 한 남자와 여자가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12 살 이셨을 때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기 위해 회당 뒤에 남아 부모님들에게 근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비범함과 함께, 이 모든 것에 평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시작 때부터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 들로 부터 다르게 묘사되었는지 볼 수 있나요. 요한도 그러 했습니다. 요한 또한 예수님의 삶이 보여준 치유의 방식과 소박함으로 사역을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메신저를 보내어 예수가 진정 구세주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들을 로마인들로부터,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건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구세주가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라 그들 옆에 있었고 그들을 이해했으며

그리고 그들을 많은 방법으로 치유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뒤집혀진 믿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대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심지어 그들의 실제 희망들이 실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제가 처음 오늘 성경 봉독 복음서를 읽었을 때, 저는 세레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순진하게 보이는 말들에 놀랐습니다. 저는 화요일 파라마타의 센터너리 광장에 있는 커피숍 야외 우산아래에 앉아서 그것에 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간신히 젖지 않았습니다. 저 맞은편에 저는 공무원들이 작업자용 장비를 들어 올려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른 장식품들을 시청 발코니에서부터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장비가 옮겨지며 뵤, 뵤 소리가 났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방울장식들을 빼고 있었고 그리고 크지만 가벼운 장식된 상자들을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포장되어서 또 다른 1 년을 위해 옮겨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크로스번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복싱 데이 이후 따뜻한 크로스번을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것이 그것을 암시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크라이브와 제가 전직회원으로 있는 Leigh Memorial Church 의 Pastoral Team 회의에서 밖의 큰 게시판에 이번 주에 어떤 단어들을 붙일 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건 매주 바뀝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라는 말에 도달했습니다. 네 일부러 도발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올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거의 모든 사람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에 왔으나, 그의 고향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그리고 기대와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역사의 이해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온갖 위험을 겪으며 사람들을 포로상태로부터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했는지 자주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대들은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배워야만 했던 것은 세월을 두고 형성되었던, 인간의 야망에 의해 만들어진 희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 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듯이 요한복음 1 장에 써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메시아의 그 길은 특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많은 기대들이 제한되었던 이유였고, 그러나 또한 매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례식에서 우리는 험박이나 경고로써가 아닌 모든 고통과 고생 그리고 인생의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시대를 통해 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써 십자가의 상징을 새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찾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리스천에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라는 질문으로부터 먼 길을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가요? 나는 그 답이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답은 “어떻게” 가 아니라 “왜” 에 연결되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우월감을 가져보려고 시도하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판단을 하려는 마음은 선지자들과 예수님 자신이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왜”라는 것에 답을 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겸손 된 마음과 함께 합니다. 이 “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갖고 있는 희망의 근거, 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앞에 신앙 안에 보여준 이야기들과 우리자신 삶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희망의 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이 좋게 배워왔고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선함을 재창조하고 우리가 볼 눈이 있을 때 그의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는 신앙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것은 종종 우리의 제한된 기대를 놀라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